

교회소식

-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시기 바랍니다.
- ※ 2014년 교회표어 :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롬12:15)
- ☞ 매일 정오 12시는 온 성도들이 성전 건물 이전을 위해 5분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 ☞ 이달의 캠페인 - 일어나서 함께가자
- ◎ **당회:** 예배 후(3시 30분) 9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 ◎ **성찬주일:** 오늘은 성찬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 ◎ **교육:** 세례자 예비 교육이 계속됩니다. 문답: 10월 5일 12시 세례식 10월 5일 주일예배
- ◎ **기도회:** 10월 월삭기도회(수)가 있는 주간입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 ◎ **감사:** 본당용 노트북 컴퓨터와 중고등부용 프로젝트를 헌물하신 성도들, 밀알봉사로 수고하신 성도들, 오늘 점심으로 섬겨주신 통가 공동체 식구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 ◎ **협력:** 밀알 장애우들이 만든 쿠키를 판매합니다. 시식하시고 도네이션 하시기 바랍니다.
- ◎ **열심:** 다음 주는 각 선교회 월례회 주일입니다. 임원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 **새벽기도회:** 매주 금요일 새벽 5시 50분에 교회 1층 Chapel 실에서 있습니다.

교우소식

◎ **등록:** 최정자 성도 334 Ponsonby Rd, Ponsonby 021-2862-933 4 여선교회



바누아투: 삼마교회 및 청소년, 포토 빌라 간호 학교



밀알장애우 봉사 Auckland City Miss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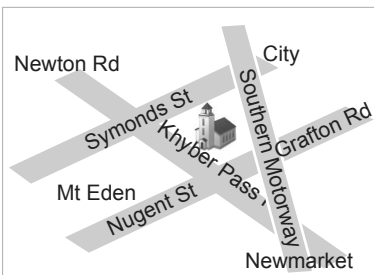


설교 방송:
www.youtube.com /calvaryorgnz
Facebook:
www.facebook.com /calvarykoreanchurch

예배시간 안내

예 배	시 간	장 소
주일1부예배	주일 PM 1:00	본당
청년모임	주일 PM 3:00	Chapel
수요예배	수요일 PM 7:30	본당
새벽기도	금요일 AM 5:50	Chapel
아동부	주일 PM 1:00	Chapel
중고등부	주일 PM 1:00	별관

오시는 길



섬기는 사람들

담임목사 (Senior Pastor)
이태한 (Tae Han Lee)

부목사 (Assistant Pastor)
심창진(Chang Jin Sim)
이성철(Sung Chul Lee)

성령의 은혜로-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Rejoice with those who rejoice; mourn with those who mourn

2014년 9월 28일 주일 16권 39호

교회창립 1999년 7월 14일

누가 영웅이 될 수 있나?

1885년부터 발간된 영국 인명사전은 2004년 부터 옥스퍼드대학 출판부가 주관해 오고 있는데, 해마다 새로운 인물이 추가 되어 2013년 현재 5만 7천 348명이 수록되어 있고 아직 생존해 있는 사람은 이름을 올리지 못합니다. 대학 출판부 측은 2010월 5월 '일러스 하틀리'라는 새로운 인물을 추가로 등재했습니다. 그는 어떤 이유로 인명사전에 오르게 되었을까요?

1912년 4월 15일 타이타닉호의 침몰로 1,517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침몰 당시 아수라장으로 변해가는 배에서 끝까지 침착하게 음악을 연주한 악단이 있었습니다. 바로 윌러스 하틀리와 그가 이끄는 일곱 명의 연주자였습니다. 그들은 배의 갑판에서 배가 가라앉기 세시간 동안 연주를 계속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연주한 곡은 찬송가 <내주를 가까이 하려함은>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승객들의 동요를 줄이기 위해 악기 연주를 쉬지 않았던 그 바이올리니스트들의 시신은 바이올린이 몸에 묶여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최후의 순간까지 악기를 꺼냈고 연주했던 악단, 그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기리는 기념물은 영국, 호주 등 13곳에 세워졌는데 배와 함께 생을 마감한 선장의 기념물보다 두 배나 많다고 합니다. 배가 침몰하기 시작하자 사람들은 살길을 찾아 아우성치고 아비규환 이 따로 없었을 겁니다. 그들도 침몰하는 배에서 열린 탈출해 더 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른 승객들의 동요를 막기 위해 연주를 멈추지 않았습니. 배가 완전히 침몰할 때까지 공포의 세시간 동안 얼마나 마음을 졸였을까요?

그 연주자들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침착하게 연주를 계속했고, 그래서 결국은 자신들의 시신이 바이올린에 묶인 채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생각하니 마음이 숙연해집니다. 이 악단을 인명사전에 올린 옥스퍼드대학 출판부 측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평했습니다. "이 음악인들의 용감하고 자비로운 행동은, 재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존엄성과 영웅적 자질을 보여준 상징이 됐다".

영웅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자신이 가진 재능과 자신이 할수 있는 일로 다른 사람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면, 더욱이 다른 사람의 영혼까지도 구원 할 수 있다면 그는 분명 영웅이 되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스스히 잊혀지고 있음 즈음에 새삼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과 비교하여 끝까지 연주를 멈추지 않았던 악단 일곱명이 오버랩됨은 어쩔일까요? - 이태한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갈보리교회 Calvary Korean Church

70 Khyber Pass Rd, Grafton Auckland www.calvary.org.nz 담임목사: 이태한
Ph: 09-369-5077 Ph: 09-475-6312 mb: 021-968-388 email: LTH-07@calvary.org.nz

주일 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 주
예배로 부름
개 회 송
참회의 기도
* 찬 송
* 성 시 교 독
* 신 앙 고 백
찬 송
대 표 기 도
성 경 봉 독
찬양대 찬양
설 교
찬 송
성 찬 식
헌 금 기 도
교 회 소 식
* 응 답 송
* 축 도

반주자
시편 96:9-10
찬양대
다함께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91. 성찬
사도신경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현석호 장로
사도행전 26:24-32
나무십자가 찬양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이태한목사
144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집례자
인도자
인도자
여기에 모인 우리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수요 예배

찬 양
기 도
성 경
설 교
합 심 기 도
광 고
찬 송
주 기 도

수요 찬양단
김봉희 권사
하박국2:12-17
선지자의 두번째 질문1/이태한목사
인도자
인도자
266장. 주의 피로 이론 샘물
다같이

청년 모임 오후 3시 인도:심창진목사

Q.T. 나눔과
조별 성경공부
기도 / 김정훈 형제

☉ 10월 교회알지

월샷 기도회: 10월 1일(수)
세례식: 10월 5일(주일)
향존직분자 기도회: 10월 25일(토)
추수감사주일: 10월 26일(주일)

☉ 10월 예배봉사가

예 배 안 내: 박병민/이기중
새신자안내: 김수원/최희숙/
박혜숙/경덕현
주 차 안 내: 김광영/민광호
주 방 봉 사: 한상순/김윤숙/장태욱/
양윤주/박재란

☉ 기도순서

이번 주 애찬: 이규임 권사
다음 주일: 최득수 집사
다음 주일 청년부: 최정인 형제
10월 8일 수요: 임혜자 권사
10월 8일 애찬: 김기영 사모
10월 12일 주일: 고성일 장로
10월 12일 청년부: 김준섭 형제

금주의 기도제목

- 1. 성전 건물 구입이 사람의 주장이 아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 2. 다음 세대인 교회 학교의 질적 성장과 부흥에 관심을 갖는 교회가 되도록, 교사와 교역자들에게 사명감과 성령충만이 더해지도록.
- 3.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에 직면한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위로로 잘 극복하도록.

10월 새벽기도회 본문

1일: 전도서 1:1-1 인생의 허무함과 마주할 때
3일: 전도서 2:1-11 쾌락도 부귀도 잠시입니다
10일: 전도서 6:1-12 자족하며 누리지 못함이 불행입니다
17일: 전도서 10:1-11 세상의 모순을 넘어설 지혜를 구하십시오
24일: 요한계시록 2:1-11 처음 사랑을 기억하고 고난을 이기는 교회
31일: 요한계시록 5:1-14 영원히 찬양받으실 죽임당하신 어린양

선교와 중보기도

갈보리 각 공동체는 공동체별로 맺어진 선교사들과의 긴밀한 교제를 통해 사역소식과 기도제목들을 나누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공동체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을 위해 적극적인 중보로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는 아프리카 차드국의 양승훈 최영주선교사의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희들은 안식년을 은혜 가운데 마치고 드디어 차드에 입국하여 새롭게 적응하고 있습니다. 공항에 도착하자 이것저것 체크하는 의료인들과 마스크를 쓰고 공항 업무를 보는 공항 요원들을 보며, 유행하는 질병에 대한 긴장감이 새삼 느껴졌습니다. 안식년을 마치고 차드로 떠나기 위해 짐을 꾸리며 꼭 가지고 가고 싶은 책들이 있었습니다. 한참을 이리저리 구겨 넣어도 해결되지 않는 무게, 결국 그 책을 나중에 기회 되면 반기로 하고 남겨 두었습니다. 책들을 포기하고 나니 얼마나 쉽게 짐이 꾸러지는지. 그렇게 꼭 필요할 것 같던 책이 차드에 입국해 보니 사실 별로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지는 않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역하며, 살아가며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지는 환경과 상황은, 사실 포기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 때문은 아닌가...', '목숨을 내어 놓고 포기하면 모든 것은 너무나 쉬워지는데 바로 그곳,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는 그곳에 힘겨움이 잉태되어 장성하는 것은 아닌가...'

이곳 차드의 사역과 삶에서도 사실 대부분 많은 어려움은 내 안에 포기되지 않는 나의 연약함 때문임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열정을 품되 그것이 과한 욕심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 포기하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현지 사람들에게 대해 기대와 희망을 가지되 그것이 좌절과 분노로 결론나지 않도록 나의 기대를 내려놓는 법을 배워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1. 차드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보쿠하람'이나 '에볼라' 등이 진정되고 사역에 제한을 주거나 방해가 되지 않도록
- 2. 북쪽 깃때 교회 지역에 큰 비가 와서 많은 집들이 침수되어 무너진 소식을 입국하여 듣게 되었는데 교회를 통해 도움이 가고 지역민들에게 위로가 있도록
- 3. 가족 모두의 영육 간 강건함과 아이들의 학업과 적응을 위해